화엄사 매화사진 콘테스트 수상자 누굴까

옥맹선 전문작가 총무원장상 선정
휴대폰 부문 대상에는 김동희 씨
1141개 작품 출품…열띤 경합 펼쳐
5월 15일, 봉축법요식에서 시상식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19교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가 '2024 제4회 화엄사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의 응모작 심사 결과 수상작'을 발표했다.

화엄사는 "전체 응모작은 1141개 작품으로 전문작가 사진 405개, 휴대폰 카메라 사진 736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지난 2023년에 출품된 총 897개 작품보다 훨씬 더 열띤 경합을 벌였다"고 밝혔다.

올해 전문작가 사진부문으로 '화엄매의 자태'를 출품한 옥맹선 씨가 최우수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부상, 화엄사 템플스테이 1박 2일 이용권이 주어졌다. 휴대폰 카메라 사진부문 최우수상인 화엄사 교구장스님상에는 '화엄매 야경 반영'을 출품한 김동희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금 70만원 등 부상이 전달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장은 "이번 사진 심사에서는 휴대폰으로 촬영해 접수한 사진이 많아 사진대회가 화엄사의 또 하나의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화엄사의 상징이자 대표격인 홍매화를 과거 사진 입상작들과의 구도를 벗어나 창의력이 깃든 사진에 많은 점수를 준 반면 사진 촬영 후 보정이 심한 것은 제외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4회를 맞은 이번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는 각황전 옆 홍매화가


총무원장상 수상작 옥맹선 씨의 '화엄매의 자태'.

국가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후 첫 번째 행사다. 전국 각지에 있는 전문 사진작가들이 새벽부터 저녁 산문을 닫는 시간까지 온종일 홍매화를 담는데 여념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번 콘테스트가 진행된 35일 기간 동안 25만5000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화엄사를 찾았다. 이는 화엄사 창건이래 특정 기간동안 최다 방문객을 맞은 진기록으로 평가된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교통의 오지인 구례 지리산 대화엄사를 많이 사랑해 주고 방문해 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당부의 말도 남겼다. 덕문 스님은 "외국에 관광을 가면 그 나라의 보물·유물을 아끼는데 정작 우리나라 유적들은 쉽게 다루고 소중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쉬움이 든다"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다음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진 콘테스트의 수상작들은 화엄사 2025년 화엄사 달력과 홍보물에 게재되며, 구례군 홍보에도 사용한다. 시상은 오는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 화엄사 봉축법요식에서 개최된다.

선운사 고창포교당, 숫타니파타회 발대식

세대 아우르는 불교인재 육성
명상, 교육, 순례 등 진행 예정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고창교육문화회관 고창포교당(주지 수찬 스님)이 4월 23일 전법과 교육, 수행을 위한 '숫타니파타회' 발대식을 봉행했다.〈사진〉

숫타니파타회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불자 육성을 위해 결성됐다.

숫타니파타회에서는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고창포교당 신도회의 활성화를 이끌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불교교육으로 신규 불자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주 일요일 어린이 법회를 열고 초기 불전인 숫타니파타와 체계적인 불교 교육, 불교와 물리학을 접목한 교육 등 알기 쉬운 불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선운사 고창포교당 주지 수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고창포교당은 숫타니파타회와 더불어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명상, 치유, 교육, 문화, 성지순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총무국장 현적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일으킨 한 생각은 분명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고창 불교 발전의 초석이 되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수찬 스님을 중심으로 마음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찬 스님은 최은서 숫타니파타회장, 정성남 부회장, 최창근 총무국장, 조봉헌 청소년 포교팀장, 유인재 기획홍보팀장 등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감사에는 최국순, 박유자 불자를, 자문위원으로는 김길태, 남혜경 교수를 위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차 시배지' 하동 쌍계사, 차문화 축전 연다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동안
K-팝 콘서트 등 프로그램 다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차를 재배하기 시작한 시배지인 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가 '2024년 차문화 대축전'을 연다.

쌍계사는 5월 2~5일 4일간 천년을 이어온 차의 역사와 전통 차문화를 체험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하동 야생차 축제'와 연계해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한국 전통 차문화와 미래세대를 잇는 문학 장르의 확산을 꾀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5월 2일 쌍계사 차나무 시배지에서의 개원 채다를 시작으로, 5월 3일에는 쌍계사 괘불전과 팔영루에서 세계차와 신라다도, 고려다도, 조선 전통다도, 선차시현이 열린다. 제36회 진감·초의·고산 다맥 전수식과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K-어울림 축제'도 이어진다. 5월 4일에는 쌍계사 차 시배지 답사와 시쓰기로 구성된 특별 청소년프로그램 '茶-디카시로 만나다'가 준비돼 있다.

'茶-디카시로 만나다'는 디지털 시대에 멀티언어예술인 디카시를 통해 쌍계사 시배지차를 만나는 특별한 경험으로, 청소년들에게 한국문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축하행사도 마련됐다. K-pop콘서트와 조영남, 송창식, 김세환이 출연하는 고산음악회 쎄시봉콘서트를 선보인다.

5월 5일에는 차 박물관 특설무대에서 국가별 문화공연과 각 나라의 음식을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문도 화합으로 백양사 발전 이루겠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취임법회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4월 19일 경내 대웅전에서 역대 조사 다례재와 함께 무공 스님〈사진〉의 주지 취임식을 가졌다.

무공 스님은 취임 일성을 통해 "지난 4년 초임 주지로 살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문도의 화합을 바탕으로 역대 조사스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소임을 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백양사 명예원로의원 암도 스님, 원로의원 성오 스님,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 무공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중앙종회의원 만당 스님, 향문 스님(미황사)을 비롯해 백양사 문도스님들과 김광태 백양사 신도회장, 장경덕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장, 고재진 장성군 의장 등 사부대중이 참여해 축하했다.

문도를 대표해 성오 스님은 "4년 전 어려운 여건에서 무공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아 백양사 정상화에 큰 노력을 해주셨다"며 "무엇보다도 화합을 최우선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해 동림선원 개원 6주년 기념법회

지역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도



2018년 개원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김해 동림선원(주지 신공 스님)이 4월 20일 3층 대법당에서 개원 6주년과 은암문화재단 창립 4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동림선원 주지 신공 스님은 "6년 전 건물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원력과 신심으로 도량이 점차 발전돼 가고 있다"며 "동림선원이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사찰로 발전하고 은암문화재단도 불교 문화 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큰 힘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개원기념 법회에서는 은암문화재단 장학금 전달식도 열렸다. 은암문화재단 이사장 신공 스님은 박건영(계명대 웹툰전공학과), 우상민(동국대 법학과), 송영호(부산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이지원(부산대 철학과), 이민서(부산대 대학원 법학과) 학생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북 봉축위, 봉축기원탑 점등법회

전주역앞 마중길 분수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일원 스님, 진성 스님)는 4월 21일 전주역 앞 마중길 분수대에서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 날을 봉축하는 봉축기원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점등한 기원탑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난과 사회적 갈등, 이념대립 등의 위기를 극복의지를 담아 익산 미륵사지 동탑을 1/5로 축소한 전주 한지로 제작됐다.

전북 봉축위원회 공동위원장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불교의 연기사상과 생명존중은 환경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인류의 주목과 기대를 받고 있다"며 "자비의 연등, 환경의 연등에 불을 밝혀 불교사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불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 불교계 봉축 점등식 잇달아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가 4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을 갖고 올해 광주지역 봉축행사를 시작했다.〈사진〉 이날 불을 밝힌 봉축탑은 강진 월남사지 5층석탑을 전통한지로 재현한 것으로 높이가 15m에 달한다.

구례불교사암연합회(회장 덕문 스님)도 4월 21일 구례경찰서 앞 광장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하고 지역 불교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문수보살상을 한지로 재현한 봉축탑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양산시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

영축총림 통도사와 양산불교사암연합회가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와 양산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동진 스님, 미타암 주지)는 4월 22일 양산시 종합운동장 양산대종 앞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부처님의 큰 진리의 큰 가르침이 우리 양산의 곳곳에 스며들어 양산이 세계에서 가장 품격 높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돕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충북불교총연합회 부처님오신날 기원법회

충청북도불교총연합회(회장 정덕 스님, 법주사 주지)가 4월 23일 청주 S컨벤션본관 4층에서 부처님오신날 기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 도성 원장 스님, 천태종 명장사 주지 도웅 스님, 청주시 불교연합회장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 진각종 각계심인당 혜심 정사님, 대한불교선학원 풍수사 주지 덕일 스님을 비롯해 시군별 사암연합회장스님들,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윤건영 충북교육청 교육감 및 각급기관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정읍 불교사암연 봉축기원탑 점등식

정읍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원 스님. 내장사 주지)는 4월 18일 정읍시 연지아트홀 로터리 광장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정읍 불교사암연합회장 대원 스님은 "사부대중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 정진하고 자비를 실천하여 중생을 제도하며 시대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불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읍불교사암연합회장 대원 스님은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음성불교사암연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음성군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인 스님, 가섭사 주지, 이하 연합회)가 4월 19일 음성 문화예술회간에서 부처님오신날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연합회 회장 상인 스님은 "오늘의 점등으로 밝은 빛이 골고루 퍼져 모든 이가 차별되지 않고 밝은 마음, 밝은 미소로 아름다운 음성군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연합회 부회장 도봉 스님(원각사 주지), 연합회 사무총장 도암 스님(진불사 주지)과 안해성 음성군의회의장 등이 동참했다.

한편 음성군 봉축법요식 및 제등행렬은 5월 11일 오후 4시 설성공원 일원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충남도청불자회 부처님오신날 점등법회

창립 30주년을 맞은 충남도청불자회(회장 허창덕)가 충남도청 로비에서 '2024년 부처님오신날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점등법회에는 조계종 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예산주지협의회장 효성 스님(향천사 주지), 서산주지협의회장 혜산 스님(개심사 주지), 태안주지협의회장 흥법 스님(태을암 주지), 당진주지협의회장 상준 스님(영랑사 주지)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날마다 부딪치는 중생의 모습과 이웃의 가슴속에 부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자"는 봉축법어를 남겼다.

유재상 충청지사장